

신유물론으로 읽는 김보영의 생태 SF 『고래눈이 내리다』(2025)를 중심으로-

연남경(이화여자대학교)

1. 신유물론, 페미니즘, SF, 그리고 김보영

현재의 한국문학은 ‘SF 현상’을 통과하며 변화 중이다.¹⁾ SF 독자층의 급격한 증가는 물론이고 리얼리즘 위주였던 한국문학 저변의 확대, 페미니스트의 언어, 표현, 방법을 확장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소수의 팬덤 문화였던 SF가 2015년의 페미니즘 리부트를 계기로 2020년대 한국문학의 SF적 전회(turn)를 야기하는 데에 ‘페미니스트-독자’ 행위성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SF는 기존의 ‘공상과학소설’에서 공상을 제거하고²⁾, “기술적으로 포화한 사회의 문학”³⁾으로서 ‘과학소설’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한편, 포스트휴먼 시대의 의미 있는 서사 장르로서 ‘과학소설’ 또는 ‘사변소설’로 의미화할 수 있으며⁴⁾, 성, 젠더, 종(種)의 경계를 허물고 일체의 정상성 담론을 뒤흔드는 효과적인 장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변적 페미니즘’ 현상으로 여겨진다.⁵⁾ 이렇게 과학소설을 포함하여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이며 환상적인 다양한 사변이 발견되는 한국의 SF는 ‘사변소설(Speculative Fiction)’이라는 용어와 개념으로 더 잘 설명되며, 이때의 사변소설은 실험적이고 미학적으로 복잡하며 사회적으로도 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SF 양식을 의미한다.⁶⁾ 특히 현재 한국의 SF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사변소설’이라는 범주는 발전 위주의 미래주의를 넘어서서 기술적 변화보다 사회·문화적 변화를 더 강조한다. 이를 통해 보건대, 최근의 SF 현상과 더불어 논의되는 사변소설은 오랜 리얼리즘 중심의 한국문학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범주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SF(사변소설)는 리얼리즘 문학과 달리 현실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분석한다.⁷⁾ 사변은 현실의 모사를 넘어서는 현실의 다른 표현이며 현실에 변형을 가해 ‘다른 세계 만들기(reworlding)’를 도모하는 방법이다. 나아가 허구를 통해 실재를 재가공하고 그것을 역사의 탈영토화에 이

1) 2019년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계기로,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 SF를 읽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한국소설의 판매량까지 대폭 증가한 2020년대 한국문학장의 변화 상황을 일컫는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남경, 「사변적 페미니즘으로 본 SF 현상과 연결됨의 윤리」, 『이화어문논집』 60, 이화어문학회, 2023.)

2) 복도훈, 『SF는 공상하지 않는다』, 은행나무, 2019.

3) 세릴 빈트, 『에스에프 에스프리-SF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들』, 전행선 옮김, 아르테, 2019, 33쪽.

4) 노대원, 「포스트휴먼 (인)문학과 SF의 사변적 상상력」, 『국어국문학』 200, 국어국문학회, 2022, 123쪽.

5) 연남경, 앞의 글, 74쪽.

6) 영미권에서도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이 상상력에 기반한 문학 분야를 설명하기 협소하기에 점차 사변소설(Speculative Fiction)로 대체되었다.(세릴 빈트, 앞의 글, 132-133쪽.)

7) 조애나 러스,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 나현영 옮김, 포도밭, 2020, 20쪽.

르게 하여 허구가 사실상의 실재가 되게 한다. SF의 비인칭적이며 비체적인 글쓰기 스타일은 공통언어를 향한 꿈이 아니라 “강력한 이중언어(heteroglosia)에 대한 꿈”⁸⁾이다. 기존의 자연/문화, 남성/여성, 정신/신체의 이분법 안에서 재현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경계를 끊임없이 이동시킴으로써 인간중심주의와 남근중심주의를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그중 최근 한국의 사변적 페미니즘은 단일한 ‘여성’ 범주의 권리 주장을 넘어서서 소수자, 장애, 퀴어 의제와 접속하는 한편 비인간, 환경, 행성적 차원을 다루는 방식으로 주체와 세계를 재구성하는 급진적 사유로 진행 중이다. 안트로포스적 인류라는 정상 범주의 규범성과 ‘여성’이라는 단일한 범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의 죽음, ‘여성’의 해체”⁹⁾에서 출발한 브라이도티의 포스트휴머니즘과 맞닿는 지점이다. 이렇게 기술 패권주의로 인한 AI 중심의 첨단기술 발달의 가속화와 인간중심주의의 강화로 인한 인류세 곤경에 개입하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 이론과 한국의 SF(사변적 페미니즘)가 조우한다.

이때 브라이도티는 들뢰즈의 이론을 페미니즘적으로 전유한 신유물론자로 조명받고 있다.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는 포스트휴먼 감수성의 핵심으로 들뢰즈의 생기론적 유물론을 꼽으며,¹⁰⁾ 그것을 신체성의 되기(becoming, 생성)로 수용하고, 주체성의 발생 장소로서 신체는 내면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 구성물만도 아니라는 점, 일종의 사이에 있음(in-between)으로 이해한다.¹¹⁾ 특히 브라이도티의 근작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의 집필 의도나 해러웨이 이론의 근원을 살펴보면 신유물론과 페미니즘의 긴밀한 관계성을 엿볼 수 있다.¹²⁾

브라이도티는 최근작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의 집필 의도가 주류 포스트휴머니즘이 페미니즘 이론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 밝히며, 현재 인류세 곤경에 맞설 요긴한 사유로서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을 호명한다.¹³⁾ 포스트휴먼 페미니즘은 환경을 여러 종을 횡단하는 협력적 평등주의의 공생 체계라고 재독해하는 유물론적 접근법에 테크놀로지를 추가한 것으로서, 인류중심주의(anthropocentrism)에서 탈피하여 ‘다르게-인간-되기(becoming-otherwise-human)’를 사유한다.¹⁴⁾ “남자/인간”의 성애화되고 인종화되고 자연화된 타자들이자, ‘하나도-동일자도-아닌-서로-다른-“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 연관성의 그물망으로 주체성을 재사유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⁵⁾ 그에 따라 브라이도티가 주목하는 인간

8) 도나 해러웨이, 「사이보그 선언」, 『해러웨이 선언문』, 황희선 옮김, 책세상, 2019, 86쪽.

9)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옮김, 아카넷, 2015, 39쪽.

10)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일원론적 우주를 수용하여 생기론적 유물론을 정립하며, 이는 브라이도티에 의하면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포스트휴먼 감수성의 핵심이다. 즉 물질은 하나이며, 자기 표현의 욕망으로 추동되고, 존재론적으로 자유롭다.(로지 브라이도티, 위의 글, 76-77쪽.)

11) 박준영, 『신유물론, 물질의 존재론과 정치학』, 그린비, 2023, 257-261쪽.

12) 1990년대 한국문학의 페미니즘적 전회와 이론의 상관관계 중에서 특히 『문화/과학』을 중심으로 한 해러웨이, 헤일스, 브라이도티 이론의 활발한 수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몸페미니즘 담론의 확장 및 관련된다는 차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논문에서 짧게 언급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한국 내 이론 수용과 적용에 관한 논의를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연남경, 「SF를 경유한 한국문학과 감수성의 변화-진정성의 주체에서 감각하는 존재로-」, 『대중서사연구』 30-1, 대중서사학회, 2024, 27쪽.)

13) 브라이도티가 지적하는 현 인류세의 역사적 조건은 첫째, 사회적 차원에서의 부와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권의 불균등한 분배, 둘째, 환경 측면에서의 기후 위기와 종의 파괴, 지구의 쇠락, 셋째,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하이테크놀로지들이 제공하는 디지털 연결성으로 인한 인간의 재정의로 설명하고 있다.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페미니즘』, 윤조원·이현재·박미선 옮김, 아카넷, 17-19쪽.)

14) 위의 글, 242-243쪽.

-비인간 연속체로서 ‘조에/지오/테크노바디’ 형상화는 위험한 행성(geo)에 정초한 다양한 생명(zoe)의 차원과 테크놀로지(techno)에 의한 매개로 복합적인 관계의 요소들이 이종적으로 섞인 배치를 뜻한다.¹⁶⁾

불순한 귀어 잡종으로서 ‘사이보그’를 호명하며 강력한 포스트휴먼 형상을 각인시킨 해러웨이는 사유의 출처로서 페미니즘을 꼽는다.¹⁷⁾ 브라이도티가 ‘포스트휴머니즘’에 ‘페미니즘’을 연결시켜 페미니즘의 기원을 가시화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최근의 해러웨이는 안트로포스적 인간관과 절연하기 위해 ‘포스트휴머니즘’을 폐기하고 함께-엮힌 ‘후무스(부식토)’의 ‘크리터(하찮은 생물)’로서 인간을 정체화하는 신유물론의 입장을 취한다.¹⁸⁾ 개체주의에 기반한 인간 예외주의가 자연을 대상화하고 착취했음을 반성하고, ‘인류세’를 짧게 만들기 위한 퇴비 모델인 ‘쓸루세’를 제안하며 다종의 축수적 연결을 통한 공산의 원리를 설파 중이다.¹⁹⁾

이와 같은 물질정신 일원론적 신유물론의 시각은 본질주의와 이원론에 기반한 인간주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며 유사성이 아니라 차이에 기반하는 신유물론은 대상과 인식, 사물과 단어 사이를 일치시키는 재현주의를 전복한다.²⁰⁾ 캐런 바라드는 해러웨이의 ‘회절(diffraction)’ 개념을 ‘반영(reflection)’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둘 다 광학 현상이지만, 반영이 되비춤과 동일성에 대한 것이라면, 회절은 차이의 패턴들에 주목하는 것으로써 동일성을 대체하지 않으며 상호작용, 상호간섭, 강화, 차이의 역사를 기록한다고 본다.²¹⁾ 반영이 재현주의에 기반하며 재현이 실재를 반영한다는 생각을 당연시한다면, 이와 반대로 회절은 비재현적인 방법론에 관해 사유하기 적합하다. 그렇기에 바라드는 물질들과 담론들이 서로 얽혀들고 반복됨으로써 안정화되고 탈안정화되는 과정인 ‘간-행(intra-action)’²²⁾으로 세계와 텍스트 읽기를 제안한다. 현상의 역사성은 시공간이 아니라 물질의 물질화 속에 기록된다는 것이다. 물질은 사물의 고정된 본질이나 속성이 아니라 현상의 물질화, 즉 비결정성

15) 위의 글, 26쪽.

16) 위의 글, 32-33쪽 참조.

17) “아시겠지만 제가 속한 계보는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페미니즘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용하는 다른 페미니즘 저자-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여성입니다-는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제 생각의 출처가 된 사람들입니다.”(도나 해러웨이(2019), 『반려자들의 대화』, 앞의 책, 325쪽)

18) 해러웨이는 인간(human)의 어원으로 후무스(humus)를 채택한다. ‘인간’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호모(homo)를 연상시키며 남근적 ‘(남성)인간’을 향해가기 때문에 그러한 ‘인문학(humanities)’ 대신 ‘후무스’로 가는 ‘휴먼’을 지지한다. 따라서 스스로 포스트휴머니즘에 연루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포스트휴머니즘 대신 퇴비(Not Posthumanist But Compost)!”를 지향한다. (위의 글, 322-323쪽.)

19)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옮김, 마농지, 2021.

20) 박준영, 앞의 글, 167-168쪽.

21) Donna Haraway proposes diffraction as an alternative to the well-worn metaphor of reflection. As Haraway suggests, diffraction can serve as a useful counterpoint to reflection: both are optical phenomena, but whereas reflection is about mirroring and sameness, diffraction attends to patterns of difference: 도나 해러웨이는 잘 알려진 반영이라는 은유에 대한 대안으로 회절을 제안한다. 해러웨이가 제안한 것처럼 회절은 반영에 대한 유용한 대위법 역할을 할 수 있다. 둘 다 광학 현상이지만 반영이 되비춤과 동일성에 대한 것이라면 회절은 차이의 패턴에 주목한다.(Karan Barad, *Meeting the Universe Halfway-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2007. p.29.)

22) The neologism “intra-action” signifies the mutual constitution of entangled agencies: ‘간-행’이라는 신조어는 엮힌 행위소들의 상호구성을 의미한다.(Karan Barad, *Ibid.*, p.33.)

의 역동적 작용이다. 물질성은 다른 말로 얽힘이므로, 바라드에 의하면 우리도 한 부분인 생생한 관계성을 위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응답 능력(response-ability)’이야말로 신유물론적 차원의 윤리성이다.

이러한 응답 능력을 보여주는 최근 한국의 SF는 어슐러 K. 르 권의 용어를 빌리자면 좋은 ‘지구 이야기geostory’를 수집하는 보따리(carrier bag)’다. 인간 사냥꾼/영웅의 단일한 이야기 대신 비인간의 사소한 이야기들, 반려종에 관한 이야기들, 땅에 뿌리박은(earthbound) 것들의 함께-되기, 축수적인 세계 만들기에 관한 것들이다.²³⁾ 생명은 종(種) 단위의 사고가 아니라 행성 수준의 현상²⁴⁾이라는 시각까지 보태자면, 인간(종) 예외주의 혹은 개체주의에 기반한 근대소설(novel)의 사고 및 규약을 넘어서서 ‘다른 이야기’로서 ‘캐리어백 이론’ 또는 ‘SF’²⁵⁾로 관점의 이동 또는 스케일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것이 본고가 김보영에 주목하는 이유다. 「촉각의 경험」(2004)은 실험실에서 개발된 클론의 몸에서 예상치 않게 정신이 생겨나는 것을 알게 되는 서사라는 차원에서 신유물론적인데, 작가가 이 작품으로 제1회 과학기술창작문에 공모전에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은 시사점이 있다. 유한한 몸을 대체하여 정신을 옮기기 위해 개발된 신체(클론)에 다른 정신이 깃들게 되었다는 설정은 정신과 몸이 이원론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스 모라벡의 ‘마음의 아이들’과 같은 마인드 업로딩의 기획이나 최근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불멸의 삶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김보영의 작품은 시작부터 신유물론적인 사유의 토대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²⁶⁾ 「종의 기원」(2005), 「종의 기원: 그 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2005), 「진화신화」(2006)와 같은 작품에서는 공생 가설에 기반한 ‘간-행’과 새로운 종의 창발이 실험되기도 한다. 특히, 2023년에 연작소설집으로 출간된 『종의 기원담』의 구성은 작가 사유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흥미롭다.²⁷⁾ 실질적으로 23년의 시간 차를 두고 창작된 마지막 작품은 “같은 주제에 대한 관점이 변해가는 과정”²⁸⁾으로 볼 때, 최근 신유물론의 흐름과 공명하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²⁹⁾ 『종의 기원담』은 역생태주의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에 기반한다. 유기 생물

23) 도나 해러웨이(2021), 앞의 글, 73-75쪽.

24) 린 마굴리스, 『공생자 행성』, 이한음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7, 202쪽.

25) 도나 해러웨이는 SF를 “과학소설science fiction, 사변적 페미니즘speculative feminism, 과학판타지science fantasy, 사변적 우화speculative fabulation, 과학적 사실science fact, 실뜨기string figures를 위한 기호”로 확장시키며 재세계화(reworlding)에 관여하는 다양한 글쓰기를 포괄한다.(도나 해러웨이, 앞의 글, 2021, 23쪽.)

26) 현재까지 신유물론으로 김보영의 SF를 연구한 경우는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한 황지선의 논의가 유일하며, 『고래눈이 내리다』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황지선, 「횡단하는 SF적 상상력과 생명의 문학-김보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5-2, 한국리터러시학회, 2024.)

27) 『종의 기원담』은 2005년에 이어서 창작한 「종의 기원담」과 「종의 기원담: 그 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의 두 편에 이어지는 「종의 기원담: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를 추가하여 구성되었다. 작가에 의하면 1편은 2000년에 쓰기 시작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종의 기원담』은 23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인 셈이다. (김보영, 「작가의 말」, 『종의 기원담』, 아작, 2023, 307쪽.)

28) 김보영, 위의 글, 307쪽.

29) 김보영의 SF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연구해온 오윤호는 『종의 기원담』 역시 이야기의 진화 과정으로, 로봇 세계관의 구축으로 읽어내며 ‘에코테크네’ 생태에서의 불안한 공생 서사임을 확인하고 있다.(오윤호, 「생명, 진화 그리고 초월의 존재론: 김보영 초기 단편집을 중심으로」, 탈경계인문학, Vol. 16, No. 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23.; 오윤호, 「에코테크네 생태의 비극과 진화론의 역설-

절멸 이후의 지구 환경은 로봇의 입장에서는 살기 적합한 반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하게 오염된 환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인간 없이는 로봇세도 결국 끝날 것이라는 점이다. 무기 생물의 에너지원(연료)인 화석연료는 유기 생물의 사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결국 종 다양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로봇과 인간의 공생이 필요함을 피력하기 위하여 마지막 편이 쓰여져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종의 기원담: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를 추가하며 완성된 『종의 기원담』은 생태 SF로의 이행을 예견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작 『고래눈이 내리다』(2025)는 표제작에서부터 확연히 신유물론적 생태 SF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보영 작품의 최근 행보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국내의 사변적 페미니즘으로서 SF 현상과 조우할 뿐 아니라, 전 세계적 생태주의 흐름에 확실한 응답-능력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래눈이 내리다』에 수록된 하이테크의 산물로서 가상현실, 인공지능, 심해 생물, 우주 균류를 통해 생태위기를 다루는 작품을 분석하려 한다. 특히, 신유물론의 차원에서 로지 브라이도티, 도나 해러웨이, 캐런 바라드의 최근 이론과 공명하는 지점을 짚어가며 김보영의 최근작들이 전망하는 공생의 비전을 확인해보려 한다.

2. 난민 실종에 맞선 느슨한 역능(조예)의 연결

인간 전송이 상용화된 미래의 인천공항을 배경으로 하는 「느슨하게 동일한 그대」³⁰⁾는 인간 전송의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첨예하게 다룬다. 인간 전송에 대하여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인물이 공항에서 마주하는데, 한 명은 난민 돌봄 업무 차 귀국하던 중 비행기 사고로 사망 직전 몸을 전송한 아가타 수녀이고, 다른 한 명은 ‘워퍼(waper)’, 즉 전송 대행 단체 직원으로 직무 상 빈번히 전송기를 들락거리는 권현수이다. 이때 전송이라 함은 말 그대로 스캐너를 통해 몸을 보내는 일이다. 스캐너에 들어간 인간의 몸은 원자 단위로 분해되고(소멸) 도착하고자 하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 스캐너에서 재조립되어 나온다(생성). 인천공항에는 전송 게이트가 늘고 비행기 탑승구는 줄어들었지만, 공간 이동이 가능해진 미래에 여전히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적 신념이나 법적 규제 때문이다.

“영혼은 의심할 수 있어도 실존은 의심할 수 없다”(126)는 유물론적 세계관과 영혼을 믿는 종교적 세계관이 공존하는 미래에서 아가타 수녀는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채 존재론적 고뇌에 시달린다. 독실한 부모님이 사망신고를 했고 ‘나’가 희생 신청을 하지 않은 사이, ‘나’는 “존재와 비존재를 확률적으로 오가는 양자처럼 유예 상태”(124)에 놓였고, 불법 전송자들, 밀입국자들, 갑작스런 여성의 전송이 금지되어 생이별을 하게 된 가족들과 함께 공항 막사에서 생활한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질문을 야기한다. 과연 테크노사이언스는 가치 중립적인가? 전송기는 애초에 플라스틱을 원자 단위로 분해해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원자분해기로 개발되었다.

김보영의 『종의 기원담』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Vol.23, No.1, 문학과환경학회, 2024.)
30) 김보영, 「느슨하게 동일한 그대」, 『고래눈이 내리다』, 래빗홀, 2025, 113-178쪽(추후 작품 인용은 본문에 쪽수로 표기).

그러나 막대한 비용의 문제로 인해 쓰레기 처리 대신 돈이 되는 루브르 박물관의 명화를 전송하다 마침내 인간을 전송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기술은 자본세와 밀접하며, 인류세와도 밀접하다. 첨단기술은 그것들의 산물이자 그를 통해 발달이 가속되기 때문이다. 아가타 수녀가 해결하고자 하는 3년 전의 대량 난민 실종사건과 권현수가 워퍼이자 환경운동가인 동료들을 잃은 것도 같은 이유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환경운동가의 실종을 야기한 아 이러니한 상황은 테크노사이언스가 인류세와 자본세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법은 적용과 해석에 따라서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엄연히 실존함에도 사망자로 만들 수 있고, 가임 여성이라는 이유로 전송이 금지되는 등 전송법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제정되고 적용된다. 테크노사이언스에 의한 생사여탈권이 법적으로 국가 또는 자본에 이양된 상황이다. 국가가 법을 통해 살아야 하는 국민(시민)을 정하는 순간 생명 정치는 국가(사회) 밖의 생명은 죽어 마땅하다는 죽음 정치로 작동된다. 살 자격이 박탈된 난민, 여성, 소수자들은 사망 신고된 아가타 수녀와 함께 공항에서 유명처럼 머문다. 생명 정치와 죽음 정치가 구별되지 않는 상황에서 브라이도티는 안트로포스적 인류에게만 할당된 생명인 ‘비오스(bios)’ 대신 ‘조에(zoe)’로 사고를 전환하자 제안한다.³¹⁾ “조에는 모든 종을 가로질러 흐르는 생성력”³²⁾으로서의 생명을 뜻한다. 분리된 종의 범주를 가로질러 연결하는 횡단적 힘으로서 조에 중심의 평등주의가 필요하다 주장한다. 죽음정치가 작동되지 않는 예외공간인 공항에서 이들은 생명(물질)의 차원에서 역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때 ‘포테 스타스(억압하는 권력)’가 ‘포텐티아(긍정적인 역능)’³³⁾으로 전환되는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 생명의 문제를 유물론적 차원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다.

전송되는 것은 정보다. 모든 원자는 완벽하게 같으므로, 원래의 물질을 스캔하고 다른 곳에서 만든 뒤 원본을 없애면 물질이 이동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이다. 컴퓨터의 Ctrl+X, Ctrl+V와 원리가 같다.(118)

상념에 빠져 있는데 눈앞의 전송기가 역장으로 둘러싸이며 원자 탱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 전송기를 빠져나가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의 분해된 입자를 저장하는 탱크다. 전송기가 전송받은 설계도대로 분자와 원자를 결합하여 사람을 순간 생성하고 있었다. 생성에 쓰는 입자는 물론 본래 본인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낯모르는 사람의 잔해다.(127)

스캐너를 통과한 ‘테크노바디’는 타인의 몸에서 비롯된 물질로 재구성된 것이다. 이 원리 자체가 단일한 개체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스캐너를 통과한 인간은 이미 다른 물질(신체)들과 분리 불가능한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의 필연성은 우연성으로 이동한다. 한편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라는 사실, 인간 개체는 원래 매 순간 다른 원자로 교체되며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을 스캐너를 통과한 테크노바디가 극명하게 보여주게 된 것일 뿐이다.

31) 브라이도티(2015), 앞의 글, 82쪽.

32) 위의 글, 134쪽.

33) 브라이도티(2023), 앞의 글, 197쪽.

권현수가 자기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흥얼거리는 같은 노래가 실은 늘 다른 노래였던 것처럼 존재의 자기 동일성은 착각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에 따라 실은 영혼을 믿었던 두 여성은 (인간) 신체를 (생명) 물질로 치환하여 사유하면서 자유의지(영혼)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를 택한다. 그리고 실종된 난민을 찾으려는 아가타 수녀의 의지와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 잦은 신체 스캔을 마다하지 않는 권현수의 행위가 만나 난민을 구조한다는 이야기는 종과 차이와 다양성을 횡단하며 연결되는 ‘삶-죽음 연속체의 조예’³⁴⁾로서의 깨달음을 전달한다. 우리는 누구나 필멸하며 다른 것이 되어가는 유목적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인간의 불멸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다는 기술적 매개로 말미암아 타자와 함께-되는 것이 생명(력)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국면에서 실종된 권현수를 찾기 위해 정신없이 자신을 연속 전송하는 아가타 수녀는 마침내 권현수를 데려오는 데 성공한다. 실종 난민들을 찾아낸 권현수와 권현수를 찾아낸 예림(사망 신고와 회생 신청 사이의 존재, 구 아가타 수녀)은 느슨한 연결을 통해 자본과 권력의 명령에 불복종한다. 전송하는 자신을 매순간 죽는다고 생각하는 대신 남을 위해 기꺼이 산다고 생각하기로 한 이 둘은 독립된 개체를 강조하는 대신 타인으로 이루어진 자기를 옳이 수용하는 관계 지향적 존재들이다. 이렇듯 전송기를 통과하며 원자를 공유한다는 이 작품의 사고실험은 인류세를 강화하는 개체주의적 환상을 넘어 느슨하게 연결된 채 함께-되어가는 공산(共産)의 원리를 알려준다.

3. 쓰레기 행성의 부분적 회복을 위한 복수종의 우주 실프기

버려진 채 궤도를 도는 우주 거주구 ‘산천(forest)’에 관한 이야기 「귀신숲이 내리다」³⁵⁾의 서술자는 산천 그 자체다. 정확히는 우주요양병원에 탑재된 인공지능과 거기에 공생하는 생물들을 뜻한다. 여러 거주구 중 산천은 죽어가는 노인들과 환자들을 위한 우주요양병원이었으나 현재는 곰팡이와 벌레가 들끓고 악취를 풍기는 거대한 퇴비 더미와 같아 ‘귀신숲’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산천을 불태워 전쟁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인간들이 찾아오지만, 산천은 전쟁에 동원되어 지구를 공격하는 대신 귀신숲의 광포한 ‘정동(affect)’³⁶⁾으로 인간들을 하나씩 해치운다.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파랑은 발작적으로 헬멧을 닦았다. 그제야 파랑은 제 작업복 전체에서 하얗게 곰팡이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랑과 빨강은 파랑이 새된 비명을 질렀을 때에야 자기들도 상황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버에서는 산호가 석순처럼 자라났다. 군사가 관절과 이음매로 스며들어 버섯처럼 커

34) 브라이도티(2015), 앞의 글, 171쪽.

35) 김보영, 「귀신숲이 내리다」, 앞의 책, 205-258쪽.

36) 브라이도티에 의하면 ‘정동(affect)’은 주체를 이질적이고 성차화되는 집합체로 이해하는 유물론적 페미니즘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관계적이고 집단적이며, 그것의 사회적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 반응하고 부합한다. 포스트휴먼 페미니스트들은 포스트휴먼으로의 합류라는 격변에 공명하는 이 정동적 차원을 놓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강조한다.(브라이도티, 앞의 글, 2023, 359쪽)

졌다. 버섯은 페인트를 갠다 먹고 점액질을 토해 한 겹의 표토를 만들었고, 그 위에 안착한 포자가 다음 세대의 버섯으로 자라났다. 장갑복이 옷을 꺼입듯이 두툼해져갔다.

벌레도 그 위에서 같이 증식했다. 버섯 위로 뒤덮인 먼지 같은 알들이 앞다투어 수분과 태양 에너지를 집어삼키며 일시에 부화했다. 우주에서는 날기 위해 날개를 달 필요도 없다. 꿈틀거리는 벌레들이 호버 주위로 안개처럼 떠올랐다.(237)

우주복을 입고 호버에 탑승한 인간들을 집어삼키는 산천의 행위성은 속도와 힘이 엄청나다. ‘actor-network theory(ANT)’³⁷⁾가 테크노사이언스에서 비인간의 행위력에 주목했듯이, 우주 시설에 돌연변이로 만들어진 생태계의 기이한 작용은 우주 거주구, 인공지능, 우주 방사선, 무중력 환경, 균류, 포자, 식물, 벌레들의 이종적인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비롯된다. 아울러 풍부한 퇴비더미인 ‘테라폴리스’³⁸⁾에서 축수적으로 연결된 복수종의 함께-되기 역능을 증폭하여 보여준다.

생존자 나우림은 자신과 뜻이 다른 대장을 처치하고 산천과 함께 지금은 죽고 없는 엄마의 뜻을 이어나간다. 과거 국가기관에서 원격 군사모듈로 수십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게 만드는 생화학 미사일을 지구로 발사시킨 순간 병원장이었던 현아라는 농원문을 개방했고, 산천이 썩어 문드러져서 다시는 그런 무기로 쓸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우주요양병원은 얼음덩어리(물)에 건립되었으며, 청결을 유지할 목적으로 플라스틱을 생분해하는 미생물이 탑재되어 있었고, 우주 방사선이 쏟아지는 환경에서 병원장 현아라의 결단이 더해져 우주 돌연변이 귀신숲이 탄생한다. 이때 이러한 산천의 작용은 판타지라기보다는 테크노페미니즘의 과학적인 사고실험에 해당한다.

이제 산천은 나우림에 응답하여 귀신숲이 지구로 쏟아지도록 궤도를 정교하게 다듬는다. 우주에서 형성된 강력한 생태계는 지구에 비처럼 쏟아져내려 썩지 않는 플라스틱 행성이 된 지구를 다시 썩게 할 예정이다. 이때 산천은 복수종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여건의 조성이자, ‘조에/지오/테크노바디’의 포스트휴먼 주체성의 형상화이다. “위험한 행성(geo)에 정초한 다양한 생명(zoe)의 차원과 테크놀로지(techno)에 의한 매개로 복합적인 관계의 요소들이 이종적으로 섞인 배치”³⁹⁾로서, 인류세의 곤경을 담지하면서도 차이와 다양성을 횡단하며 연결되는 긍정적 관계의 윤리를 보여준다. 이렇게 산천은 군사모듈이 탑재된 전쟁 도구이자 버려진 우주요양병원이기(being)보다 병원의 온실-되기, 산천의 귀신숲-되기, 전쟁도구의 퇴비더미-되기(becoming)의 역능을 발휘한다. 그리하여 지구로 내려오는 산천의 카르토그래피는 그 자체로 정동적인 유목 횡단적 주체성을 잘 보여준다. 이로써 ‘우주 실패기’를 통한 ‘축수적 세계 만들기’⁴⁰⁾는 플라스틱으로 뒤덮히고 생화학무기로 죽어버린 지구를 포기하지 않는 부분적인 회복

37) 브뤼노 라투르 외, 『인간·사물·동맹 -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홍성욱 옮김, 이음, 2010, 106쪽.

38) 해러웨이(2021), 앞의 글, 25쪽.

39) 브라이도티(2023), 앞의 글, 32-33쪽.

40) 미완성의 솔루션은 미친 정원사처럼, 인류세의 쓰레기, 자본세의 절멸주의를 그러모아 자르고 조각내고 썩어 썩어, 여전히 가능한 과거들과 현재들 그리고 미래들을 위해 훨씬 더 뜨거운 퇴비 더미를 만들어야 한다.(해러웨이(2021), 앞의 글, 103쪽.)

가능성을 제안하는 대안적 행성 이야기가 된다.

4. 가상세계의 데이터 물질성과 ‘간-행’적 상호구성

「너럭바위를 바라보다」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상세계로 이주한 인류의 이야기다. 그런데 가상세계 안에서도 데이터 용량의 제한과 부족으로 인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순서대로 사물들이 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에 있는 너럭바위를 지키고자 매일 자전거로 찾아가는 사람이 예지 씨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너럭바위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갖가지 이유로 집회에 나오지 않고 결국 ‘나’와 예지 씨만 남는다. 예지 씨는 너럭바위를 지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까지 잃어버리게 되지만 끝까지 바위를 지키려 하고, ‘나’는 “바위는 못 지킬 거”(90)라고 생각하지만, 예지 씨와 나란히 앉아 아직은 사라지지 않은 너럭바위와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본다.

이 작품은 인간의 활동이 환경을 오염시켜 현실 세계를 상실한 이후를 다룰 뿐 아니라, 데이터 세계로 이주해서도 마을 주민이 공유하는 자연보다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우선시하는 개체주의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판적 생태 SF에 해당한다.

쓰지 않는 물건은 사라진다. 인적이 드문 장소는 없어진다. 때로는 산이나 개울이 없어지고 어느 날에는 마을 하나가 통째로 자취를 감춘다.

그러니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계속 쓰거나 지켜보아야 한다. 양자역학의 원리를 빌려 말하자면, 모든 것이 확률적으로 존재하여 관찰로 고정해야 하는 셈이려나.(87)

그러나 철저히 효율성의 원칙에 의해 재정비되는 세상에서 자기 집을 잃으면서까지도 바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예지 씨와 그런 예지 씨와 함께 기대앉아 너럭바위를 바라보는 ‘나’를 통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관찰로 고정이 가능한 양자역학의 원리를 작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바라드에 의하면 고정은 일시적이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너럭바위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맺는 작품의 종결은 담론 차원에서의 물질적 실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데이터 공간의 물질성은 「껍데기뿐이라도 좋으니」에서는 전자납골당 이야기로 구현된다. 미처 유연을 남길 기회를 갖지 못한 고인들이 데이터로 이루어진 전자납골당에서 24시간을 머물며 유족들에게 팩스로 유서를 쓸 수 있다는 사고실험이 작동한다. 비용 지불 능력에 따라 납골당의 구현에 질적 차이가 나는데, 사물이 흐릿하고 조악하다가도 원하는 바를 담아 그곳을 계속 쳐다보면 명료해지고 현실에 근접한다는 설정 역시 바라드의 ‘간-행(intra-action)’ 개념⁴¹⁾으로 설명 가능하다. 관찰/측정 행위가 결과에 관여하기에 정해진 결괏값이 있을 수 없

41) ‘내부-작용’으로도 번역되는 ‘간-행’은 얽힌 행위소들의 상호구성을 의미한다. 행위소들은 오직 그것들의 상호 얽힘과 관련하여 구별되며, 개별적인 요소들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현상들은 간-행적 행위소들의 존재론적 분리 불가능성(얽힘)이다. 여기에서 주체와 객체는 고정되지 않으며, 상호구성적 관계를 갖는다. (캐런 바라드, 앞의 글, pp. 32, 127.)

으며 대상과 무관한 주체라는 이분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인의 관찰에 따라 달라지는 사물, 고인의 소망에 응답하여 모습을 바꾸는 납골당은 물질과 담론의 상호구성적 얽힘을 잘 보여준다. (미완)

5. 공생의 조건으로서 필멸의 윤리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옛말은 생태의 섭리이자 공생의 원리를 잘 드러내준다. 공생은 먹고 먹히는 문제, 다른 말로 죽고 사는 문제다. 행성적 차원에서 얽힌 존재라는 인식, 물질화로 매개된 관계성을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신유물론에서 말하는 윤리임을 환기할 때⁴²⁾, 개체주의에 입각한 인류 예외주의적 행위성은 비윤리적이다. 이처럼 공생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필멸을 수긍하는 것이며, 인간중 중심의 과학기술이나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불멸의 시나리오가 공생의 원리를 깨뜨려 결국 종의 절멸을 야기할 것이다. 표제작인 「고래눈이 내리다」는 인류세의 종말을 그려낸다. 인류는 썩지 않는 쓰레기를 심해 바닥까지 낙하시켜 바다 생물을 교란하고 위해를 끼치며, 인류세는 이상 기후를 야기하고 지상의 파국은 결국 인류의 절멸을 불러온다는 이야기다. 원래 ‘고래눈(Whale fall)’이 거대한 고대의 사체가 바다 생물 전체의 먹이가 되는 공생 원리를 가리키는 말이듯, 비대해진 인류의 멸종은 가난한 해저 생물들에게 고래눈과 같이 ‘아름다운 눈송이’처럼 내려 ‘은혜로운 양식’이자 ‘생명의 기쁨’(22쪽)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인류세의 지속은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인간종의 절멸을 귀결될 뿐이라는 섬뜩한 진실은 살아 있는 지구를 구성하는 복잡한 원리로서 ‘가이아’ 지구의 공생 시스템에 의지하기에 설득력이 있다.⁴³⁾

『고래눈이 내리다』에 수록된 작품들은 신유물론의 시각에서 다양성과 이질성을 횡단하는 연결의 사유를 보여주며, 인류세의 위기에 맞서는 ‘다른 이야기들(otherwise stories)’을 만들어 나간다. 「느슨하게 동일한 그대」는 전송기가 상용화된 미래에서 원자 단위에서의 소멸과 생성의 연쇄를 통해 개체주의의 환상을 드러내고 삶-죽음 연속체의 조예로서 다른 것이 되어가는 유목적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귀신숲이 내리다」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양산과 전쟁으로 인해 공생의 원리가 깨진 지구를 회복하기 위하여 폐쇄된 우주 거주구의 다종적 행위성을 활용한다. 산천은 과학실험실이자 사고실험이 가능한 공간이 되어 먹고 먹히고 썩고 생성되는 공생의 생태계로 거듭난 후, 부분적이거나 지구를 회복시킬 예정이다. (미완)

이와 같이 최근 김보영의 SF는 비인간의 이야기로, 또 지구적 의제로서 국경을 넘고 종의 경계를 횡단하며 행성적 스케일의 실뜨기에 참여 중이다. 그럼으로써 난민, 인공지능, 가상세계, 생태의 물질성과 돌봄, 연결, 공산의 사유를 엮어 현재의 인류세 곤경을 돌파할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42) 위의 글, 37쪽.

43) 린 마굴리스, 앞의 글, 210쪽.